

<2005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 “발간사”> 초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와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성 상실에 따른 슬픔을 겪어야 한다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아픔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건실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가치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써 돌봄과 포용의 여성성의 가치가 공동체의식의 핵심가치로 재조명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여성인력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거론되며 531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출마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총리가 처음으로 탄생한 역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단 한순간에 몇몇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 불현듯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이 뒤에는 수십년간 빈곤과 폭력, 불평등 등의 사회구조적인 과제를 진단하여 건강한 대안을 꾸준히 생산한 민간 여성단체들의 열의와 헌신이 있었고, 이는 곧 시대적인 요구와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민간 여성공익재단 1호로써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성단체 및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22만 여명의 기부자들의 참여로 순수 민간기금인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여성공익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여성재단 나눔의 열매 『2005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기금 약 3억여 원으로 지원된 34개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들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원이 공공 재원과 다르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를 발굴 · 지원하는 민간 여성공익활동의 훌륭한 성과들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민간 여성공익활동을 위한 유용한 정보이자 훗날 역사적인 기록으로 의미있게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파트너기관들과 더 많은 기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땅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애쓰신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들의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단과 함께해온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